

북한-러시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형성과 심화 : ‘엘리트 변수 중심 동태적 양국 관계 모델’을 중심으로*

김 시 헌**

•요 약•

본 논문은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관계 형성 및 심화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며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비판적 실재론’과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논지를 결합한 ‘엘리트 변수 중심 동태적 양국 관계 모델’을 활용해 2020년대의 양국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국제질서의 대립 격화와 이해관계의 수렴이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김정은 정권은 능동적 행위자로서 푸틴 정권과의 상호작용을 주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양국 엘리트 간 정책 지향의 합치를 바탕으로 전통적 동맹 관계가 복원·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렇게 공고화된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관계는 다층적인 구조적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추동하는 한편, 지역적 차원에서는 동북아시아 내에 중단기적으로 단절 불가능한 강력한 결속을 형성함으로써 안보의 블록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새로운 환경을 창출한 것이었다. 이 같은 분석은 학술적으로 비판적 실재론과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연계를 통한 이론적 외연 확장과 설명력을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이전과는 질적으로 차별화된 새로운 대외 구도 속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북러 관계, 북러 동맹, 북러 조약, 북한, 러시아

* 본 논문은 2026년 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보완해 작성되었으며,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21S1A5C2A01090085)입니다. 유익한 심사평을 남겨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연구교수

I. 서론

냉전 종식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1996년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이하 북·소 조약)’이 종료된 이후 전반적으로 ‘전략적 관계를 지향하는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르게 되었다.¹⁾ 탈냉전기 러시아 대외정책의 핵심 교섭 대상은 서구(유럽)였던 반면, 북한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심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2년 4월 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정식 출범했고, 동년 5월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의 세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2010년대 들어 양국은 ‘전략적 관계’의 복원을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에 따른 러시아의 대북 제재 동참,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여러 복합적인 제약 요인이 중첩되면서 실질적인 수준의 전략적 관계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군사 동맹 관계가 공식 복원되었으며, 이후 동년 10월에 이루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군의 대규모 파병은 양자 동맹의 실효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밀착은 양국의 군사 동맹이 약 28년 만에 재형성된 것을 넘어 ‘혈맹’ 수준으로 공고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의 북·러 관계는 단순한 군사·안보적 차원의 전술적 거래를 넘어, 대내외적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정치·경제 전반에서 협력을 이어가는 고차원적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24년에 구축되어 심화하고 있는 양국의 전략적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2022년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격화된 국제 질서 변화라는 구조 중심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설명한다.²⁾ 이러한 연구는 양국 관계를 주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러시아라는 강대국의 공세적인 외교·안보 전략의 결과 중 하나, 또는 소모전의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전쟁의 하부 구조

1) Асмолов, Константин и Захарова, Людмила. 2020.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с КНДР в XXI веке: итоги двадцатилетия”, Вестник РУДН. Сер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Т. 20, № 3, 591-596; Дьяков, Илья. 2022. “Россия и стран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Азиатский поворот в российско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достижения, проблемы, перспективы: монография. Анатолий Торкунов, Дмитрий Стрельцов, Екатерина Колдунова (ред.), Москва: Аспект Пресс, 73, 79-80.

2) Гамерман, Евгений. 2026.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и их влияние на региональную и глобальную безопасность”, Via in tempore. История. Политология, Т. 53, № 1, 211-221; 이상준·서동주. 2024. “러우전쟁 이후 북러 밀착과 전략적 이해”, 『러시아연구』 제34권 제1호, 203-235; 연답린. 2025. “북러 군사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안보 질서에 대한 구조적 함의-”, 『슬라브研究』 제41권 2호, 25-64; 연답린. 2025.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북러관계:신제국주의 질서론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49권 제2호, 89-143.

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동북아시아 지역 수준에서 양국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 또는 러시아의 전략적 지향을 탐구하거나, 국제정세에 대한 두 국가 내 정책결정권자의 정치적 담론과 인식을 설명하는 행위자 중심의 연구도 다수 축적되었다.³⁾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구조와 행위자 각각의 관점에서 북·러 관계의 밀착을 설명하는 데 기여해왔다. 하지만 구조와 행위자 요인의 상관관계를 통합적 분석틀로 제시하지 못해, 양국 관계의 발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구조적 변화와 양국 지도자의 인식 및 교류와 같은 행위자 요인이 결합하여, 향후 양국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관계 형성 및 심화 과정에 대한 시계열적 추적과 미시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축적된 북·러 관계의 밀착 과정에서 나타난 파편화된 실재를 재구성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현재까지 양국 관계의 동학을 자세하게 탐구할 것이다. 본 논문은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과 신고전적 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의 관점에서 북·러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에서 발견되는 미세하면서도 중대한 상호작용을 '엘리트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뒤이어 이론적 배경으로서 '엘리트 변수 중심 동태적 국제관계 모델'을 제시한다. 그리고 해당 분석틀을 적용해 본론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관계 형성 과정을 재구성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며 일련의 정치적 함의를 도출한다.

3) Lukin, Artyom. 2024. "The Korean Peninsula's New Geopolitics: Why North Korea Is Shifting toward an Alliance with Russia", *Asia Policy*, Vol. 19, № 3, 57-69; Цыденова, Елена. 2026.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сближение в контексте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КНДР", *Восточный вектор история обще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о*, Т. 92, № 1, 55-60; 이상우. 2023. "역사적 기억의 외교적 활용: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러 '축전외교'", 『한국과 국제정치』 제39권 제4호, 69-98; 박아름. 2024. "김정은의 서신을 통해 본 북-러관계", 『북한학보』 49집 1호, 117-142; 박아름. 2026. "북한의 탈단국 인식: '다극'화와 '신랭전'", 『동북아연구』 41권 1호, 91-122; 류인석. 2026.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군사개입: 거래를 넘어선 전략국가 구축", 『국가전략』, 제32권 2호, 112-120.

II. 이론적 배경

1. 비판적 실재론과 신고전적 현실주의

국가 간 관계에 대한 분석의 수준(level of analysis)은 보편적으로 ‘국제체제’, ‘국가’, ‘개인’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어왔다.⁴⁾ 그리고 오랫동안 국제정치학의 주류 이론적 패러다임의 지위를 차지해온 신현실주의(Neorealism)는 이론적 간결성을 추구하며 국가의 행위를 사실상 국제체제 수준의 접근을 통해서만 분석하고 예측해왔다.⁵⁾ 하지만 신고전적 현실주의는 이러한 국제체제 수준의 단일 접근법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와 개인을 포함해 각 수준의 변수를 연결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상했다.⁶⁾ 즉, 신고전적 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에서의 물질적 능력의 배분이라는 국제체제 수준 분석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내정치적 요소나 정책결정권자의 오인과 같은 단위 수준의 분석 역시 이론화의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바라본다.⁷⁾

그러나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분석은 지도자의 인식이나 국가 정체성과 같은 단위 수준 변수의 모호성, 그리고 특정 현상에 대한 사후 정당화 문제로 인해, ‘보편적인 법칙 발견과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⁸⁾ 실증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과학적 이론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이다. 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실재론과 인식론적으로는 상대주의의 관점을 견지하는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이론화의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복잡한 사회적 현실 속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포착하기 위한 필연적인 특징이다.⁹⁾ 다시 말해 비판적 실재

4) Waltz, Kenneth. 1959. *Man, the State, an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30-236.

5) 관련되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Waltz, Kenneth.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McGraw-Hill; Gilpin, Robert. 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ilpin, Robert. 1988. “The Theory of Hegemonic War”, *Th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 18, No. 4. 591-593.

6) Rose, Gideon. 1998. “Neoclassical Realism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World Politics*, Vol. 51, No. 1, 144-172; 정재욱. 2016.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접근을 통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 고찰”, 『국가안보와 전략』, 제16권 1호, 6.

7) Schweller, Randall. 2003. “The Progressiveness of Neoclassical Realism.” In *Progres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ppraising the Field*, edited by Colin Elman and Miriam Fendius Elman, Cambridge: MIT Press, 317; Rathbun, Brian. 2008. “A Rose by Any Other Name: Neoclassical Realism as the Logical and Necessary Extension of Structural Realism”, *Security Studies*, Vol. 17, No. 2, 296.

8) 양준희·박건영. 2011. “신고전적 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 비판”, 『국제정치논총』, 제51집 3호, 12-22.

9) 관련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Bhaskar, Roy. 2008. *A Realist Theory of Science*, London: Routledge.

론은 사회현상이 실재적 영역 속에서 경험적 영역에만 국한되어 부분적인 인과관계만을 규명할 수 있다고 바라보며, 그 결과 인과성은 특정 조건 아래 발생하는 빈번한 경향인 '발현성'(emergence)으로 나타나게 된다.¹⁰⁾ 따라서 비판적 실재론은 사회현상을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인지하며 연역적 논리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론의 성격을 부정한다. 즉, 사회과학에서 이론화의 과정은 특정 상황에 대한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아닌, 발생한 현상(관찰된 결과)을 역행추론(retroduction)함으로써 논리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나아가 비판적 실재론은 '분석적 이원론'(analytical dualism)을 제시한다. 구조와 행위자는 서로 환원될 수 없이 존재론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그중 구조가 선차적으로 행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¹¹⁾ 따라서 사회과학의 메타이론으로서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은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제기된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며, 국제체제 수준과 단위 수준 분석의 연결과 통합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2. 엘리트 변수 중심 동태적 양국 관계 모델

메타이론으로서 비판적 실재론과 국제정치학 이론으로서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결합은 사회학의 분석모델인 '형태발생론'(Morphogenetic)을 기반으로 미시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해 시도되었다.¹²⁾ 마가렛 아처(Margaret Archer)는 사회현상이 '구조-문화적 조건화'(structural-cultural conditioning)와 '행위자의 상호작용'(interaction), 그리고 '사회적 정교화'(social elaboration)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 발현한다는 형태발생론을 제시했고, 이러한 단계가 국제관계에서 분석 수준의 변수들과 연결되어 특정 외교정책의 도출로 이어진다는 분석틀로 재구성된 것이다.¹³⁾ 이는 사회과학의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가

10) 신회영. 2019. "정책평가에 대한 비판적 실재론적 접근: 비판적인 다원주의 방법론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9권 제2호, 125-128; 이기홍. 2021. "비판적 실재론이 상기시키는 사회과학의 가능성", 『담론201』, 제24권 제1호, 88-118.

11) Archer, Margaret. 1995. *Realist Social Theory: The Morphogenetic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65-194.

12) 공민석. 2022. "트럼프의 이단성과 바이든의 정상성?: 대중(對中) 전략의 연속성과 단절에 대한 평가", 『국가안보와 전략』, 제22권 1호, 1-53; 연답민. 2024. "구조와 행위자 차원에서 한-러관계 동학 연구: 형태발생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64집 1호, 191-239; 김시현. 2025. "러시아-카자흐스탄 관계의 동학 - '동태적 양국 관계 모델'을 중심으로.", 『슬라브研究』 제41권 4호, 69-108; 조선철. 2026. "동태적 국제관계 분석모델을 통한 중국-카자흐스탄 관계 분석", 『국제정치연구』, 29권 1호, 23-51.

13) Archer, Margaret. 1995. *Realist Social Theory: The Morphogenetic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344; 주장환. 2025. "탈-탈냉전기, 양안관계 변화에 대한 연구: '열린 결론' 접근", 『동북아연구』, 40권 1호, 226-257.

‘국제체계 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국가적 이해관계’가 ‘엘리트의 선택’에 따라 대외 전략의 동태성이 생성된다는 논리 구조로 연결된다. 이러한 분석들은 엘리트 요인에 집중하며, ‘엘리트 유형의 변화’와 ‘정책 지향의 변화’가 외교정책의 변화에 미치는 과정을 강조하는 ‘엘리트 변수 중심 동태적 국제관계 모델’(Dynamic International Relations Analysis Model Centered on Elites Variables)로 활용되고 있다.¹⁴⁾

〈표 1〉 엘리트 변수 중심 동태적 양국 관계 모델

제도적 조건 (T1)			상호작용 (T2)		양국 관계 정교화 (T3)
외생적 조건 (국제 체제)	내생적 조건 (국가의 이해관계) 물질적 측면 / 이념적 측면	상황 논리	양국 엘리트의 정책 정향	양국 엘리트의 행위전략	상대국 정책 산출 ⇒ 양국 관계 (재)형성
	필요 / 양립 가능	보호	가치·태도 일치	방어적 형태	안정적인 형태 균형 주기
	필요 / 양립 불가능	혼합수정	가치 일치, 태도 불일치	양보적 형태	
	조건 / 양립 가능	자유 활동	가치 불일치, 태도 일치	기회주의적 형태	불안정적인 형태 균형 주기
	조건 / 양립 불가능	선택 강요	가치·태도 불일치	경쟁적 형태	

출처: Margaret Archer(1995, 165-194)와 김시현(2025, 73-76)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하지만 기존의 엘리트 변수 중심 동태적 국제관계 모델은 엘리트 요인을 단위 수준 변수 중 ‘개인’ 수준이 아닌 ‘국가’ 수준에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기존의 분석들은 사실상 엘리트를 국가와 동일하게 인식하며, 단위 수준의 변수를 단순 화함으로써 기존 형태발생론의 논리 전개를 사실상 이탈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형태발생론의 기본적인 논리 전개를 충실하게 수용하고, 단위 수준 변수를 국가와 개인으로 엄밀하게 구분한 뒤, 엘리트 요인을 개인 수준 변수에 적용한 분석들을 제시한다. 다만, 본 연구는 엘리트 이론이 표방하는 ‘대중과 구별되는 소수 엘리트의 강력한 영향력’을 수용함으로써 엘리트 요인 국제체제, 국가, 개인의 모든 수준에서 핵심적

14) 주장환. 2025. “엘리트 변수 중심, 동태적 국제관계 분석 모델: 논리와 사례”, 『분석과 대안』, 제9권 제3호, 5-25; 주장환. 2025. “탈-탈냉전기, 북중 관계: ‘엘리트 변수 중심, 동태적 국제관계 변화 분석모델’을 통한 통시비교”, 『중소연구』, 제49권 제4호, 43-74.

인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분석들의 핵심 가정을 공유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분석들에서는 형태발생론의 첫 번째 단계인 구조-문화적 조건화를 '제도적 조건'(T1)으로 상정하고, 이를 국제체제 수준의 '외생적 조건'과 국가 수준의 '내생적 조건'으로 구분한다. 즉, 국제체제와 국가 수준의 변수를 구조적 조건으로 상정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였던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엘리트의 상호작용'(T2)으로 치환하여, 기존 분석들에서 강조되었던 엘리트 유형 및 정책 정향의 변화 요인을 적용한다. 아처는 형태발생론을 통해 이 단계에서의 사회적 주체(social agent)와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의 개념 및 역할을 분석한 바 있다.¹⁵⁾ 따라서 기존 분석들의 행위자를 '엘리트'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요인 역시 해당 단계에 통합되어 분석되어야 한다. 다만, 본 연구는 북·러 관계의 사례에서 2022년 이후 현재까지의 단기적 변화를 추적한다는 시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엘리트 유형 변화는 제외하고 정책 정향의 변화만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인 사회적 정교화는 '양국 관계 정교화'(T3)로 구성되어 이전 단계의 결과로서 발현되는 외교정책의 결과에 따라 형성되는 국가 간 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논리 전개 아래 본 논문은 현재의 분석들이 다자 간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표 1>과 같이 '엘리트 변수 중심 동태적 양국 관계 모델(Dynamic Bilateral Relations Model Centered on Elite Variables)'을 구성한다.

해당 분석들의 첫 번째 단계인 제도적 조건은 미시적으로 세 단계를 통해 형성된다. 먼저, 국제체제(글로벌 차원과 지역적 차원)의 변화를 나타내는 '외생적 변수'는 현실주의 이론의 주요 명제와 같이 가장 우선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외생적 조건은 특정 변화에 대한 국가의 이해관계의 특징인 '내생적 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내생적 조건은 '물질적인 측면'과 '이념적인 측면'으로 구분되는데, 물질적인 측면은 해당 국가가 사회적으로 체감하는 물질적인 상호의존성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각각 '필요' 또는 '조건'의 성격을 규정하게 하고, 이념적 측면은 지배적 가치의 사회적 수용성을 기준으로 각각 '양립 가능' 또는 '양립 불가능'의 성격을 나타나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내생적 조건의 4가지 발현성(필요/양립 가능, 필요/양립 불가능, 조건/양립 가능, 조건/양립 불가능)은 각각 양국의 이해관계에 있어 4가지의 상황 논리를 형성하게 한다. 여기서 '보호'의 상황 논리는 양국이 현재의 물질적·이념적 동질성을 유지하려는 제도적 조건을 형성한다. '혼합수정'의 상황 논리는 물질적 상호의존은 지속하지만 이념적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특정 영역에서 타협하는 제도적 조건을, '자유 활동'의 상황 논

15) Archer, Margaret. 1995. *Realist Social Theory: The Morphogenetic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47-293.

리는 이념적으로는 동질적이지만 물질적인 측면에서 각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형성한다. ‘선택 강요’의 상황 논리는 양국이 현재의 물질적·이념적 이질성으로 서로를 배제하는 제도적 조건을 형성한다.

두 번째 단계인 상호작용은 제도적 조건에서 형성된 상황 논리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결정권자(엘리트)의 정책 정향은 양국 관계에 있어 특정 행위전략을 도출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전략 변화를 측정하는 개념적 틀로서 ‘가치(현상 유지/현상 수정)’와 ‘태도(급진/점진)’ 분류법을 적용한다. 정책 정향의 ‘가치’는 체제 변화의 방향을 나타내는 나침반으로 ‘현상 유지’와 ‘현상 수정’으로 구분된다. ‘태도’는 변화를 추진하는 범위와 수단에 따라 전면적 변혁을 지향하는 ‘급진적 성격’과 단계적 개혁을 지향하는 ‘점진적 성격’으로 나뉜다. 이후 대외관계에서 양국 엘리트의 가치와 태도가 모두 일치하면 행위전략은 ‘방어적 형태’로 나타난다. 이 경우 양국 정책결정권자는 높은 수준의 상호 의존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관계를 지향하게 된다. 반면 가치와 태도가 모두 불일치하면 행위전략은 ‘경쟁적 형태’로 나타나며, 협력 범위가 크게 제한되어 대립적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 한편, 가치는 같으나 태도가 다르면 ‘양보적 형태’의 전략을 취한다. 이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정책적 차이를 극복하며 우호 관계를 지속한다. 반대로 가치는 다르고 태도만 같으면 ‘기회주의적 형태’의 전략이 나타난다. 이 경우 특정 분야에서 제한적인 협력만 이루어질 뿐, 각국의 국익과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므로 양국 간 우호 관계 유지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이처럼 분석틀의 두 번째 단계인 엘리트 요인은 국가 간 관계가 단지 구조적 요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반영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외생적 조건의 변화로 내생적 조건에서 양국의 물질적·이념적 상호의존성이 강화되더라도, 그것이 정책결정권자의 이익 및 정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예측된 방향과 다른 외교정책이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⁶⁾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비민주주의 체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단계인 양국 관계 정교화는 양국 엘리트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안정적인 형태 균형 주기’, 또는 ‘불안정적인 형태 균형 주기’에 접어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양국 엘리트의 이해관계가 상호의존적이고 외교정책의 방향이 일치한다면, 양국 관계는 우호적으로 유지되거나 전략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방어적 형태의 행위

16) 이러한 사례는 2009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 분쟁에서 나타난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Balmaceda, Margarita. 2015. *Politics of Energy Dependency: Ukraine, Belarus, and Lithuania between Domestic Oligarchs and Russian Pressur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32-135; 김시현. 2024. “우크라이나의 권력 엘리트 갈등과 과두제의 심화”, 『동유럽발칸연구』, 제48권 4호, 62-64.

전략은 안정적인 균형 주기를 지속시키며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심화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반면, 양국 엘리트의 상호작용에서 충돌 가능성이 큰 경쟁적 형태의 행위전략은 불안정적인 균형 주기를 형성한다. 이 경우 불안정한 관계가 지속되거나, 심지어 폭력적인 형태로 현상 변경이 시도될 수 있다. 한편, 양보적 형태의 행위전략은 물질적 필요조건과 엘리트의 정책에 대한 태도 일치에 힘입어 안정적인 균형 주기를 형성할 가능성이 더 크지만, 양국 우호 관계의 심화로 나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반대로, 기회주의적 형태의 행위전략은 국가 간 물질적 이해관계의 결여와 정책에 대한 태도의 불일치로 인해 불안정적인 균형 주기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에 양국은 대립적 관계로 나아가지는 않지만, 갈등 요소가 해결되지 않거나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게 된다.

이처럼 엘리트 변수를 중심으로 한 동태적 양국 관계 모델은 국제관계를 '구조적으로 축적된 조건 속에서 행위자의 선택에 따라 나타나는 열린 결말'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학술적으로는 비판적 실재론과 신헌실주의의 결합을 도모하고, 정책적으로는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당 분석틀을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관계 형성 사례에 적용하여 그 설명력을 검증하고, 나아가 이론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0년대로 설정하며, 분석 대상인 북·러 엘리트의 범위는 외교·안보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 엘리트로 한정한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 모두 최고 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정책결정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김정은과 푸틴, 그리고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핵심 엘리트의 주요 공식 발언, 기고문, 담화문 등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이들의 정책 지향 및 전략적 변화의 궤적을 규명하고자 한다.

Ⅲ. 북·러 전략적 관계의 형성과 심화

1. 북·러 관계의 제도적 조건: 대립적 국제질서와 '보호'의 상황 논리

2010년대에 비해 2020년대의 국제질서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수정주의 세력의 도전이 더욱 거세지며 '외생적 조건'에서 경쟁성이 심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2014년 2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돈바스 전쟁에 개입하며 국지전을 지속해왔고, 2022년 2월에는 '특수군사작전'을 선포하며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서구의 대응 역시 표적 제재에서 포괄적인 제재

로 전환되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유럽과 러시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해체되기 시작했다.¹⁷⁾ 아울러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구의 직접적인 군사·안보적 지원 역시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이전까지의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서 지속되었던 국지전이 유럽 지역에서 발생한 미국과 러시아 간 패권 경쟁의 대리전 구도로 나아가게 되었다.¹⁸⁾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으로 탈냉전기 국제질서 변화의 변곡점으로 분석되고 있다.¹⁹⁾ 실제로 푸틴은 2023년 2월 연방의회 연설에서 이번 전쟁을 ‘러시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규정하며, 결단코 서구가 계획한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²⁰⁾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차원에서 러시아와 서구의 갈등 국면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정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당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서구의 대러 제재에 동참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발현될 수 있는 북·중·러 연대 심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서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삼국의 군사 및 경제 안보 협력의 심화를 발표했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미·일 준동맹의 출현 가능성이 제기되며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며 한·러 양자 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의 갈등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²¹⁾ 즉, 2020년대 북·러 관계를 둘러싼 외생적 조건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국제질서의 변화를 둘러싼 대립의 첨예화로 정리할 수 있다.

2020년대의 대립적인 외생적 조건은 ‘내생적 조건’으로서 북·러 양국의 이해관계가 물질적인 측면과 이념적인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게 했다. 첫 번째로, ‘물질적인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한·러 갈등 및 한·미·일 공조 국면 아래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조건적 성격에서 ‘필요적인 성격’으로 전환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2022년 11월

17) Meissner, Katharina and Graziani, Chiara. 2023. “The transformation and design of EU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Russia”,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Vol. 43, № 3, 379–390.

18) 홍완석. 2022.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 동학, 합의”, 『슬라브研究』, 제38권 3호, 65–68.

19) 제성훈. 202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변화하는 세계질서”, 『국제지역연구』, 제27권 제1호, 9–15; 연담린. 2023. “러시아 유라시아주의와 미국 우선주의의 충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47권 제1호, 214–224.

20)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온라인),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70565> (검색일: 2026.08.23.).

21) 전재성. 2023.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전략적 함의와 향후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17–23; 홍완석. 2024. “냉전 시대로의 회귀? 윤석열 정부의 대러정책과 한·러 관계”, 『국제지역연구』, 제28권 제4호, 227–231, 240–241.

헤르손(Kherson) 철수 이후 약 1,200km에 달하는 전선의 양상이 참호전과 소모전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포탄과 탄약 등의 군비 보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러시아는 국내적으로 월간 약 83,000~125,000발의 포탄을 생산하고 있지만, 전장에서는 하루에 약 1만 발 이상의 포탄이 소모되고 있어 자국 내 자체 생산량만으로는 심각한 공급 부족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²²⁾ 특히 2023년 6월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시작되면서 소모전 양상은 더욱 심화하였다. 동일한 문제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구의 대규모 지원이 집중된 것은 물론, 2023년 7월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국의 직간접적인 포탄 지원 가능성이 고조되자, 러시아가 느끼는 군수 공급 부족의 압박은 한층 더 고조되었다.²³⁾ 북한의 경우, 2019년 하노이(Hanoi)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심화하는 대중 의존도를 타개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소모전 양상은 북한에 새로운 대외적 기회를 제공하며 북·러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국제 제재의 위협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북한은 러시아군과 즉각 호환되는 군수물자를 제공함으로써, 팬데믹 시기에 고조된 식량·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전략적 군사·과학기술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실리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²⁴⁾ 이는 양국의 최대 협력국인 중국이 서구와의 관계 및 국제 제재 준수를 의식해 제공하지 못했던 핵심 자원을, 북·러가 실질적 보상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충족할 수 있는 협력의 공간이 마련된 것이었다. 다만, 2022년 특수군사작전 시행 이전까지 러시아에 있어 북한과의 물질적 협력은 오랜 딜레마였다.²⁵⁾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NPT 체제의 보증국으로서 대북 제재의 설계 및 이행에 동참해야 하는 국제적 책임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상호보완적인 경제 협력을 심화해 나가야 하는 현실적

22) 이상준·서동주. 2024. “러우전쟁 이후 북러 밀착과 전략적 이해”, 『러시아연구』 제34권 제1호, 215-216.

23) “Песков: поставки оружия Киеву буду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вовлеченность Сеула в конфликт”, 『ТАСС』 (온라인), <https://tass.ru/politika/17558791> (검색일: 2026.08.23.); “대공세 신호탄 쏜 우크라...”이게尹 말한 상황” 탄약 지원 압박, 『중앙일보』(온라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9027> (검색일: 2026.08.23.); “Miscalculations, divisions marked offensive planning by U.S., Ukraine”, 『The Washington Post』(온라인),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3/12/04/ukraine-counteroffensive-us-planning-russia-war/> (검색일: 2026.08.23.).

24) 장세호·김성배·최용환. 2023. “러-우 전쟁 이후 북러 밀착: 현황과 전망”, 『INSS 전략보고』, No. 220, 4-7; 김성배·김종원·김태주·양갑용·최용환. 2025. “러우 전쟁 3년, 북한군 파병의 쟁점과 전망”, 『INSS 전략보고』, No. 313, 1-4.

25) Асмолов, Константин и Захарова, Людмила. 2020.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с КНДР в XXI веке: итоги двадцатилетия”, Вестник РУДН. Сер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Т. 20. № 3, 598; Дьячков, Илья. 2022. “Россия и стран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Азиатский поворот в российско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достижения, проблемы, перспективы: монография. Анатолий Торкунов, Дмитрий Стрельцов, Екатерина Колдунова (ред.), Москва: Аспект Пресс, 80.

실리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전쟁을 ‘강대국으로서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인식한 러시아에 있어 전선의 고착화와 한·러 갈등의 심화, 그리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협력 기조는 그간 북·러 간 물질적 협력을 제약하던 장애물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마련된 것이었다.²⁶⁾ 따라서 2022년부터 격화된 외생적 조건은 북·러 관계의 내생적 조건에서 물질적 측면을 상호의존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

두 번째로, ‘이념적 측면’에서 북·러 관계는 국제질서의 다극화라는 ‘양립 가능한’ 공동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시작했다. 국제질서의 다극화에 대해 북한은 이미 1995년부터 이를 ‘역사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의 필연적 산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²⁷⁾ 러시아 역시 1996년 프리마코프 독트린(Primakov doctrine) 발표를 기점으로 다극 체제 형성을 공식적인 외교정책의 기조로 채택했다.²⁸⁾ 하지만 이전까지 북·러 양국은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인식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었지만, 미시적인 부분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북한은 ‘신냉전’과 ‘다극화’를 하나의 연동된 개념으로 파악해왔지만, 러시아는 ‘신냉전’이라는 표현의 공식적 사용을 극구 자제해 왔다. 이는 과거 냉전기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트라우마와 더불어, 향후 국제질서가 미·중 중심의 새로운 양극 체제로 재편되는 것에 대한 구조적 거부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²⁹⁾ 실제로金正은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와 202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통해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제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 흐름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러시아는 2023년 개정된 ‘대외정책개념’은 물론 민관 협력으로 발간된 다양한 전략 보고서 등에서도 서구와의 대립 국면을 기술할 뿐 ‘신냉전’이라는 표현은 철저히 배제했다.³⁰⁾ 그 대신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도모하기 위해 러시아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포괄하는 ‘세계 다수’(World Majority)라는 대안적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³¹⁾ 러시아는 세계 다수에 포함되는 국가들은 각기 다른 정치·경제 및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기에, 서구식 보편 민주주의나 인권의 가치를 상호 강요하지 않으며, 이들은 ‘모든 국가가 고유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는 공정한 국제질서’ 구축의 목표를 공유한다

26) 엄구호. 2025.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북러관계”, 『통일정책연구』, 제34권 1호, 33-34.

27) 박아름. 2026. “북한의 탈단극 인식: ‘다극’화와 ‘신냉전’”, 『동북아연구』, 41권 1호, 102-103.

28) Никонов, Вячеслав. 2005. “Россия и Мир: от Горбачева до Путина.” В Политика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Курс лекций. Вячеслав Никонов (ред.),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Москве, 12-15.

29) 장세호. 2023. “북한의 신냉전 인식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EAI Global NK 논평』, 2-4.

30)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ИД России』(온라인), <https://www.mid.ru/ru/detail-material-page/1860586/> (검색일: 2026.08.23.).

31) 제성훈. 2025. “러시아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개념, 인식, 목표와 과제”, 『중소연구』, 제49권 제1호, 217-219.

고 설명한다. 이러한 러시아의 담론은 북한에 대미 대결 노선을 정당화하고,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다극 체제 구축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자국의 대외적 입지와 위상을 표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³²⁾ 이에 따라 북한 역시 2022년 이후부터 신냉전의 개념 사용보다는 다극화의 개념을 더욱 빈번하게 언급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로동신문의 기사에서 '다극'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의 수가 총 102개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그중 북·러 관계 또는 러시아의 입장을 소개하는 기사는 34개로 약 33%나 차지하고 있었다.³³⁾ 이러한 결과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개된 국제정세와 러시아의 전략이 자국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정세 판단 아래 북한이 러시아의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따라서 대립적 성격이 격화된 외생적 조건은 내생적 조건에서 북·러 양국의 이념적 동질성을 더욱 강화했고, 미시적인 차이를 희석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상기한 외생적 조건에 따른 내생적 조건은 북한과 러시아 양국 사이에 현재의 물질적 상호의존과 이념적 동질성을 유지하려는 '보호'의 상황 논리를 생성했다. 즉, 북·러 양국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게 현재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이 서로의 국익에 부합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논리는 양국 관계에 대한 북한과 러시아 엘리트의 표현과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은 2022년부터 김정은의 이름으로 발송된 축전과 노동신문과 같은 관영매체에서 푸틴을 다른 정상들과 달리 '동지'로 호칭하며 차별성을 두기 시작했다.³⁴⁾ 나아가 2023년 1월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김여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북·러 양국이 '국가의 존엄, 명예,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는 전쟁에서 한 전호'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³⁵⁾ 러시아 역시 양국 관계에 대한 북한의 축전과 지지에 곧바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2023년 3월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74주년 기념 연설에서 주북 러시아 대사인 알렉산드르 마체고라(Aleksandr Matsegora)는 북·러 양국이 미국의 강요 정책에 맞서 새롭고 공정한 국제질서의 수립을 위한 투쟁에서 '하나의 참호'(v odnom okope)에 서 있다고 발언하며, 김여정의 표현을 수용한 것이었다.³⁶⁾

32) 이상근. 2026. “북한의 다극세계 건설론: 개념, 의도, 전망”, 『INSS 전략보고』, No. 328, 5, 8-11.

33) 박아름. 2026. “북한의 탈단극 인식: ‘다극’화와 ‘신냉전’”, 『동북아연구』, 41권 1호, 106-108.

34) 이상우. 2023. “역사적 기억의 외교적 활용: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러 ‘축전외교’”, 『한국과 국제정치』, 제39권 제4호, 90.

35) 태영호, “김여정 담화의 핵심은 ‘러시아와 한 전호에 서있을 것’”, 『한국방송뉴스』(온라인), <https://www.ikbn.news/news/article.html?no=155591> (검색일: 2026.08.23.).

36) “По случаю годовщины Соглашения”, 『МИД России』(온라인), https://dprk.mid.ru/ru/press-relize/novo-sti_posolstva/po_sluchayu_godovshchiny_soglasheniya_20230317/ (검색일: 2026.08.23.).

이외에도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국방부 장관은 2023년 7월 평양 방문 당시 김정은에게 푸틴의 친서를 전달하며 북한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여기서 쇼이구는 북한을 국경을 공유하는 인접국이자 풍부한 협력의 역사를 공유해 온 러시아의 ‘중요한 파트너’(vazhny partner)로 규정했다.³⁷⁾ 아울러 그는 양국이 국제사회의 핵심 안보 현안에서 긴밀히 공조해 왔음을 강조했는데, 해당 방북은 두 달 뒤 보스토치니(Vostochny)에서 개최된 2023년 9월 북·러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점검하고 양국의 군사·안보 협력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³⁸⁾

2. 북·러 엘리트 상호작용: ‘방어적 형태’의 교류와 동맹 복원

북한과 러시아를 둘러싼 제도적 조건은 구조적으로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제공하고 있었다. 그 결과 북·러 엘리트는 2023년 9월과 2024년 6월에 진행된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인 협력과 빈번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며 전략적 관계 구축을 위한 ‘방어적 형태’의 행위전략에 집중했다. 이러한 행보는 두 국가의 권위주의적 체제 특성상,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양국의 이해관계와 지배집단의 지향이 완벽히 일치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북·러 엘리트의 사이에서는 2023년 9월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중심 단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양국 협력을 통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 달성’이라는 거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4년 6월 정상회담에서는 거시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의 동맹 관계를 복원하며 전략적 관계가 구축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북 제재(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 엘리트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졌다. 즉, 북·러 엘리트의 정책 지향은 기존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현상 수정’의 가치를 거시적으로 공유하는 데서 출발하여, 추진 방법과 범위 측면에서 점차 ‘급진적’ 태도로 심화·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첫 번째로, 2023년 9월 북·러 정상회담은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위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양국 엘리트의 가치가 ‘현상 수정’의 방향으로 일치했다. 해당 정상회담 이후 푸틴과 김정은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양국 정상은 2박 3일 동안 군사·안보 부문을 중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분석된다.³⁹⁾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

37) “Россия с КНДР засели в одном окопе: Как Сергей Шойгу в Пхеньяне съездил”, 『Коммерсантъ』(온라인), <https://www.kommersant.ru/doc/6125180> (검색일: 2026.08.23.).

38) 장세호·이기동, 2024.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관계의 진화: 경로, 특성, 전망”, 『INSS 전략보고』, No. 293, 5.

도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다'라는 발언과 함께 '북한의 최우선 순위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으며, 제국주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함께 할 것'이라는 요지의 다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⁴⁰⁾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공식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협력, 인도주의적 문제,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며 원론적인 수준의 협력 의사를 피력하는 것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비롯한 우주·과학기술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양국의 무기 거래 논의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⁴¹⁾ 결국 이러한 양국 최고 지도자의 정책 지향의 태도가 일치함에 따라 해당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판매)과 양국의 군사·기술 협력이 본격화되었다. 실제로 북한은 러시아로 122mm와 152mm의 총알과 140mm와 220mm의 방사포탄, 그리고 사거리 55~64km의 방사포와 곡사포를 담은 수많은 컨테이너를 공급하기 시작했다.⁴²⁾ 그리고 러시아는 과거 북한이 실패한 위성 발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함으로써 북한은 2023년 11월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 있었다.⁴³⁾

이외에도 여러 분야의 '정부 간 위원회'가 신설되거나 재개되며 실무적인 영역에서 양국 협력이 탄력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9월 정상회담 이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양국은 외교·안보, 경제, 지방행정 부문의 고위급 상호방문과 실무협회가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나리시킨(Sergey Naryshkin) 대외정보국 국장, 알렉산드르 코즐로프(Alexander Kozlov) 천연자원·생태부 장관, 올렉 코제마코(Oleg Kozhemyako) 연해주 주지사 등이 북한을 방문했고, 북한에서는 최섉희 외무상, 윤정호 대외경제상, 리철만 내각 부총리, 신창일 나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따라서 북·러 군사·안보 협력의 본격화는 제도적 기반과 물질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국면 속에서, 양국 엘리트가 '전쟁과 대립

39) 황일도. 2023. "북러 군사협력 논의와 평양의 지향점: 미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도전",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92-97; 최은주. 2024. "2023년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이후 북러관계 평가: 비(非)군사부문을 중심으로", 『세종정책브리프』, 7-10.

40) "김정은, 푸틴에 '러, 서방과 성전...제국주의 맞서 함께 싸울 것'", 『연합뉴스』(온라인),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3121851080> (검색일: 2026.08.23.).

41) "4년 만의 북러 정상회담... '북한 위성 개발 도울 것'", 『연합뉴스』(온라인), <https://www.yna.co.kr/view/MYH20230914000300032> (검색일: 2026.08.23.).

42) 서동주·김정기·이상준. 2024. "2024년 북러조약 체결: 전략적 의미와 한국의 대응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24권 4호, 16; "美 '러, 1년간 北에서 컨테이너 1만6천500개 분량 탄약 등 조달'", 『연합뉴스』(온라인), <https://www.yna.co.kr/view/AKR20240905005651071> (검색일: 2026.08.23.).

43) "국정원 '북, 정찰위성 발사 성공...러시아 도움 판단'", 『연합뉴스』(온라인), <https://www.yna.co.kr/view/MYH20231123008400641> (검색일: 2026.08.23.).

의 지속'이라는 실리적 수단으로서 양자 관계를 격상시키기로 결단한 결과였다. 즉, 국제질서의 다극화라는 목적을 위한 양국 엘리트의 군사·안보 협력 결정은 글로벌 차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에 기여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적 차원에서는 군사적 블록화 현상을 감내하는 정책적 지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2024년 6월 북·러 정상회담은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위한 양국 협력의 '방향성'을 공식적으로 합의하며, 국제질서 변화 방법에 대한 양국 엘리트의 태도가 '급진적 성격'으로 일치했다. 해당 정상회담은 2023년 9월 정상회담과는 다르게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북·러 조약)이 체결되며, 1996년에 종료되었던 양국의 군사 동맹 관계가 복원되었다.⁴⁴⁾ 특히 총 23개의 조항 중 '제4조'는 상호에 대한 즉각적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한 군사 원조를 명시함으로써, 이론 및 가정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고 모든 동맹 조약이 가동된다면 즉시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경우의 수가 생성되었다.⁴⁵⁾ 다만, 이러한 북·러 조약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즉각적인 확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의 규범성과 효용성이 훼손되는 것은, 그 자체로 역내 안보 지형을 흔드는 당면한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안보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북·러 엘리트의 일치된 정책 지향을 반영하는 제10조와 제16조를 국제 규범을 무력화하는 결정적인 제도적 장치로 주목할 수 있다.⁴⁶⁾ 실제로 북·러 조약의 제10조는 표면적으로는 양국 간 무역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협력을 제외한 모든 과학·기술 협력과 민감한 이중용도 품목, 그리고 한도를 넘는 에너지 무역은 대북 제재 위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⁴⁷⁾ 또한 조약에 명시된 평화적 원자력 이용 협력은 과거 2008년 미국과 인도의 사례처럼, NPT 체제 외부에서 핵을 개발한 국가와의 원자력 협정 체결이 사실상 해당국의 핵보유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

44) Choi, Wooseon. 2004. "The North Korea-Russia Alliance and Korea's Policy", IFANS PERSPECTIVES, IP2024-14E, 3-4.

45) 차두현. 2024. "북러 밀착관계와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함축성",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4-19, 4-8; Гамерман, Евгений. 2026.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и их влияние на региональную и глобальную безопасность", Via in tempore. История. Политология. Т. 53, № 1, 217-219.

46)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Я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МИД России』 (온라인), https://www.mid.ru/ru/foreign_policy/international_contracts/international_contracts/2_contract/62546/ (검색일: 2026.08.23.).

47) 최은주. 2024. "2023년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이후 북러관계 평가: 비(非)군사부문을 중심으로", 『세종정책브리프』, 12-13.

다.⁴⁸⁾ 나아가 제16조는 '일방적인 강제 조치의 적용을 반대'한다고 명시한 뒤, '양국은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조치의 적용 및 실천을 배제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상기한 조항의 내용과 더불어 2024년 3월 러시아가 대북 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었던 UN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 연장을 거부했던 사례를 통해 사실상 북·러 조약은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탈 가능성이 표면화된 것이다.

이전까지 러시아는 제재 문제에 있어 북한과 동일한 피제재국으로서 '제재의 효용성'을 전면 부인하는 비판적 관점이었지만, 대북 제재의 '규범적 정당성'은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북·러 조약을 전후로 현존하는 국제 규범의 지속에 대한 러시아 엘리트의 인식이 바뀌었다. 실제로 푸틴은 2023년 9월 정상회담 당시에는 양국 관계를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며 규칙의 틀 내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가 있다.⁴⁹⁾ 하지만 2024년 6월 정상회담 직전에 푸틴은 양국 관계에 대한 기고문을 러시아 대통령실과 북한의 노동신문에 공개하며, '서구의 통제에서 벗어난 무역 및 상호 합의를 위한 대안적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에 공동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공표하며 정책 지향의 태도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⁵⁰⁾ 나아가 2024년 9월 라브로프 역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핵 결의안에 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사실상 '종결된 문제'(closed issue)로 바라보고 있다고 발언했다.⁵¹⁾ 이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자주의 외교 틀 내에서의 북핵 해법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역량 고도화 우려와 함께 양국 간 군사·안보 공조가 핵추진 기술 협력이라는 위험 수준으로 진화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⁵²⁾ 따라서 2024년 6월 정상회담을 전후로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위한 북·러 협력의 방향성은 국제 제재의 규범성을 훼손하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일치하며 양국 엘리트의 정책 지향의 가치뿐만 아니

48) INSS. 2024.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 한반도 파급 영향", 『INSS 전략보고』, No. 275, 6-7.

49) "Путин: РФ соблюдает санкции ООН против КНДР, но перспектив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ВТС есть", 『ТАСС』(온라인), <https://tass.ru/politika/18741163> (검색일: 2026.08.23.).

50) "Стать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газете «Нодон синмун» «Россия и КНДР: традиции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квозь год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온라인),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74317> (검색일: 2026.08.23.).

51) "러 외무 '北 비핵화, 종결된 문제...IAEA 북핵 결의안 거부'", 『연합뉴스』(온라인),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7003100109> (검색일: 2026.08.23.).

52) 엄구호. 2025.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북러관계", 『통일정책연구』, 제34권 1호, 34-35; Timofeev, Ivan. 2024. "Russia-North Korea: The Useless Threat of Sanctions", 『Valdai Discussion Club』(온라인), <https://valdaiclub.com/a/highlights/russia-north-korea-the-useless-threat-of-sanctions/> (검색일: 2026.08.23.).

라 태도에서도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2023년 9월부터 2024년 6월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북·러 엘리트 간의 상호작용과 정책 지향의 일치는 최종적으로 ‘북·러 조약’ 체결을 통한 양국의 전략적 관계 형성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향후 국제체제에서 대립 구도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김정은 정권이 북한의 확증보복능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 러시아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추론된다.⁵³⁾ 실제로 김정은은 러시아 전승절(5월 9일)과 북한 해방절(8월 15일) 등의 정기적인 국경절과 대선 당선 축하문(2024년 3월)과 같은 비정기적인 정치적 이벤트를 중심으로 추진된 축전 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에서 일제 강점기 해방 과정의 역사적 연대를 현재의 반미 제국주의 투쟁과 결부시켜 러시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해당 경향은 2022년부터 시작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그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났다.⁵⁴⁾ 특히 김정은은 10월 7일 푸틴의 생일 축전을 활용해서 2023년 6월 정상회담 이후에는 양국 관계가 ‘전략적 높이’로 격상되었다고 강조했고, 이어 2024년 9월 정상회담 이후에는 ‘불패의 동맹 관계’, ‘백년대계’를 공식 선언하며 푸틴을 ‘가장 친근한 나의 동지’로 표현하는 등 양국 밀착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대러 밀착 행보에 따라 푸틴 정권 역시 2023년부터 북한의 국경절(9월 9일)에 보내는 축전에서 의례적인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관계를 분명히 밝히며 국제정세와 상관없이 양국 관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나아가 러시아는 2023년 3월 개정한 대외정책개념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동년 12월 최고위급 외교·안보 전략가들이 주도하여 발간한 전문가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동북아시아의 핵심 협력국으로 명시하기 시작했다.⁵⁵⁾ 또 2024년 6월 정상회담 직전에는 새로운 유라시아의 안보 구조를 북한과 함께 구상하고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⁵⁶⁾ 따라서 이러한 양국

53) 황일도. 2023. “북러 군사협력 논의와 평양의 지향점: 미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도전”,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100-101; INSS. 2024.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 한반도 파급 영향”, 『INSS 전략보고』, No. 275, 4.

54) 이상우. 2023. “역사적 기억의 외교적 활용: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러 ‘축전외교’”, 『한국과 국제정치』, 제39권 제4호, 77-79, 86-87; 박아름. 2024. “김정은의 서신을 통해 본 북-러관계”, 『북한학보』, 49집 1호, 125-129.

55) Караганов, Сергей., Крамаренко, Александр., Тренин, Дмитрий. 2023.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в отношении Мирового большинства.” Доклад Центра комплексных европей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ИУ ВШЭ, 32.

56) “Стать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газете «Нодон синмун» «Россия и КНДР: традиции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квозь год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온라인),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74317> (검색일: 2026.08.23.).

엘리트의 방어적 상호작용은 김정은 정권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러시아 외교를 통해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북·러 관계 정교화: '안정적 형태 균형 주기' 속 동맹의 심화

2024년 6월 정상회담을 통해 북·러 조약이 체결되어 양국의 동맹 관계가 약 28년 만에 재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관계를 형성했다는 분석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실질적인 군사 동맹 조약 발동을 통해 이러한 관계가 더욱 공고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Kursk Oblast; 이하 쿠르스크로 표기)를 공격하며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자, 북한은 동년 10월 북·러 조약 내 제4조의 상호 군사 원조 조항을 근거로 군대를 파병했다. 그 결과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관계는 군사·안보적으로 중국과 같은 수준인 혈맹의 단계로 공고화되었으며, 이후 군사기술 협력 수준의 발전은 물론 교역·인프라·인적교류로도 포괄적인 협력을 진행하며 사실상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⁵⁷⁾ 따라서 2024년 10월 북한의 쿠르스크 파병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관계는 동맹의 이행을 통해 '안정적인 형태 균형 주기'를 형성하며 공고화되기 시작했다.

기실 북한군의 파병 이전까지 북·러 조약에 따른 양국의 동맹 관계에는 전략적 모호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러시아에 있어 중단기적으로 북한과의 협력은 필요했지만, 동맹 관계에 따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반발은 물론 실질적인 군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연루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나아가 2023년 9월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가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회원국인 아르메니아의 개입 요청을 수락하지 않은 선택은 향후 해당 조약의 이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명확한 근거가 되었다. 또한, 2024년 북·러 조약은 과거의 북·소 조약과 다르게 조약의 이행에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⁵⁸⁾ 첫 번째로, 조약의 이행에 있어서는 'UN 헌장과 양국의 법률에 준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실제 군사 충돌의 상황에서는 법률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었다. 이는 북·소 조약은 물론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하 북·중 조약)'에서도 삽입되지 않는 조건이었다. 두 번째로 조약의 유효기간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과거의

57) 최은주. 2024. "2023년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이후 북러관계 평가: 비(非)군사부문을 중심으로", 『세종정책브리프』, 14-24; 연답린. 2025. "북러 군사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안보 질서에 대한 구조적 함의-", 『슬라브연구』 제41권 2호, 39-48; 연답린. 2025.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북러관계: 신제국주의 질서론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49권 제2호, 124.

58) INSS. 2024.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 한반도 파급 영향", 『INSS 전략보고』, No. 275, 5-6.

조약은 ‘10년의 유효기간 설정 후 5년마다 자동 연장’되는 방식이었던 반면, 현재의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유지하되 일방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1년 뒤 효력이 상실되는 구조로 변경된 것이었다. 즉, 표면적으로는 기간이 없는 영원한 동맹 관계로 포장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시된 구속력 있는 기한으로부터 자유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장치와 더불어 러시아의 엘리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양국 관계를 ‘군사 동맹’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북·러 조약의 체결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동맹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며 양국의 안보적 밀착을 강조한 김정은과 다르게, 푸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수준’만을 언급했다.⁵⁹⁾ 또, 당일 라브로프는 “필요할 경우 우리가 북한을 위해 싸워야 하고, 북한도 우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라는 국내 언론사의 질문에 적극적인 긍정보다는 조약의 ‘방어적 입장’(oboronitelnaya pozitsiya)을 강조하는 답변을 내놓았다.⁶⁰⁾ 이후 외무부 차관인 안드레이 루덴코(Andrey Rudenko) 역시 북·러 조약은 한반도 문제를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진 국가(미국)에 대한 경고이지만,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조를 악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대러 제재 국면 속에서도 한·러 관계의 직접적 대립은 부재하다고 평가하며, 해당 조약의 대남 겨냥 가능성을 일축하고 양국 관계의 파국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⁶¹⁾

하지만 이러한 북·러 동맹 관계는 2024년 10월 러시아 본토를 침공한 우크라이나 군대를 겨냥한 북한군의 공식적인 파병이 이루어지며 이행되었다. 파병 당시까지 북·러 조약은 러시아 의회의 비준이 완료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발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2024년 12월 발효). 이에 따라 한국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해당 사태를 북·러 조약의 발동에 따른 파병이 아닌 거래에 의한 용병(총알받이)으로 규정하기도 했다.⁶²⁾ 하지만 2025년 4월 양국 정부가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함에 따라, 북·러 조약은 공식 발효 전부터 이미 실질적인 이행 단계에 진입했음이 증명되었다. 김정은 정권 특수 부대인 ‘폭풍 군단’을 포함해 총 1만 2천여 명의 군대를 파병했지만, 개전 초기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으

59) 서동주·김정기·이상준. 2024. “2024년 북러조약 체결: 전략적 의미와 한국의 대응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24권 4호, 10-12.

60) “Ответ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В.Лаврова на вопрос Первого канала, Пхеньян, 19 июня 2024 года”, 『МИД России』(온라인), https://mid.ru/ru/press_service/minister_speeches/1958176/ (검색일: 2026.08.23.).

61) “В МИД РФ назвали договор России и КНДР предупреждением для третьих стран”, 『Известия』(온라인), <https://iz.ru/1717798/2024-06-25/v-mid-rf-nazvali-dogovor-rossii-i-kndr-preduprezhdeniem-dlia-tretikh-stran> (검색일: 2026.08.23.).

62) “김용현 국방 ‘러시아 간 북한군, 파병 아닌 용병이라 해야’”, 『조선일보』(온라인),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814> (검색일: 2026.08.23.).

로 약 40%가 전투 불능 사태에 빠졌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군 단위부대에 편입된 북한군은 전장 적응을 마쳤고, 2025년 2월 추가 파병에 힘입어 쿠르스크 내 우크라이나 점령지 대부분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⁶³⁾ 이러한 북한군의 선전은 러시아와 푸틴 정권에 있어 상당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러시아는 소모전 상황에서 군수 물품 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병력 수급 부족 문제에도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 9월 부분 동원령 선포 당시 푸틴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하며 안보결집효과가 흔들렸던 것과 같이 추가적인 대규모 징집은 국내 정치의 안정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은 교착된 전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향후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특히, 서구식 훈련을 받고 신형 무기로 무장한 3~4만 명 규모의 정예 병력이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쿠르스크 급습은 우크라이나가 단행한 승부수였다.⁶⁴⁾ 그렇기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점령을 저지하고 이를 탈환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인정받은 북한군의 파병은 단순히 동맹 조약의 제도화를 넘어, 양국의 전략적 관계가 혈맹으로 격상되었음을 시사한다.

그 결과, 양국 관계는 안정적인 형태 균형 주기에 아래에서 군사·기술 협력을 심화할 뿐만 아니라 경제·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 협력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군사·기술 협력과 관련해서는 2024년 11월 S-300 방공체계 지원으로 시작된 협력은 2025년 6월 샤헤드-136형 자폭 드론의 기술 이전 및 생산라인 구축으로 확대되었으며, 동년 10월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ICBM '화성-20형'의 개발 과정에서도 러시아의 고도화된 기술지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⁶⁵⁾ 특히, 이러한 양국의 군사·기술 협력에 대한 의심은 2025년 5월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 북한군이 역사상 최초로 참여하며 더욱 고조되었다. 나아가 물류 인프라 측면에서는 2025년 4월 착공한 '나진-하산 두만강 자동차 다리'가 상판 연결을 마치고 올해 여름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보건·관광 분야에서는 2026년 4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조로친선병원' 착공식이 거행되는 등 양

63) 김성배·김종원·김태주·양갑용·최용환. 2025. "러우 전쟁 3년, 북한군 파병의 쟁점과 전망", 『INSS 전략보고』, No. 313, 5-10.

64) "우크라이나, 정예 병력과 대규모 장비 투입해 쿠르스크 점령", 『동아일보』(온라인),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825/126671824/1> (검색일: 2026.08.23.).

65) 김보미. 2025. "북한의 드론 전력 강화와 러시아 협력의 전략적 의미", 『INSS 이슈브리프』, 제732호, 4; "신원식 '러, 北파병 대가로 평양 방공망 장비-대공 미사일 지원'", 『동아일보』(온라인),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123/130485885/2> (검색일: 2026.08.23.); "합참의장 '北 ICBM 화성-20형, 러 기술지원 가능성 충분'", 『연합뉴스』(온라인),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4088751504> (검색일: 2026.08.23.).

국의 포괄적 협력 기조가 다각도로 시각화되고 있다.⁶⁶⁾ 그중 인적 교류 측면에서 북한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 큰 중국 일반 관광에 앞서,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단체 관광을 우선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양국의 긴밀한 우호 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⁶⁷⁾ 아울러 2024년 여름 재개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은 기존 건설 중심의 남성 노동시장을 넘어 제조·가공 부문의 여성 인력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현지 임금 상승세와 맞물려 북한의 외화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⁶⁸⁾ 따라서 북·러 전략적 관계의 심화는 글로벌 차원에서는 다극화 질서를 추동하는 동력이 되었으며, 지역적 차원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 중단기적으로 이격이 불가능한 밀착 구조를 정착시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IV. 결론

본 논문은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관계 형성 및 심화 과정에 대한 시계열적 추적과 미시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국제질서의 대립 격화와 이해관계의 수렴이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김정은 정권은 능동적 행위자로서 푸틴 정권과의 상호작용을 주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양국 엘리트 간 정책 지향의 합치를 바탕으로 전통적 동맹 관계가 복원·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그리고 이렇게 공고화된 북·러 전략적 관계는 다층적인 구조적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추동하는 한편, 지역적 차원에서는 동북아시아 내에 중단기적으로 단절 불가능한 강력한 결속을 형성함으로써 안보의 불확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새로운 환경을 창출했다. 이 같은 분석은 학술적으로 비판적 실재론과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연계를 통한 이론적 외연 확장과 설명력을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이전과는 질적으로 차별화된 새로운 대외 구도 속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66) “북러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 연결식...‘6월 19일 완공’” 『동아일보』(온라인),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421/133785767/1> (검색일: 2026.08.23.); “원산서 북러 친선병원 착공식... ‘방대한 협조사업 추진’”, 『뉴스시스』(온라인),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23_0003602655 (검색일: 2026.08.23.).

67) 최은주. 2026. “북·중·러 초국경관광의 가능성과 전략적 함의: 접경 교통·교류 재편을 중심으로”, 『세종포커스』, No. 2024-21, 3-4.

68) 정은이. 2026. “중국과 러시아 사이: 변화하는 북한 노동자 시장”, 『KINU Online Series』, CO26-32, 3-5.

제공한다.

〈표 2〉 북한-러시아 전략적 관계의 형성과 심화

제도적 조건 (T1)			상호작용 (T2)		양국 관계 (T3)
외생적 조건	내생적 조건 (물질적 측면 / 이념적 측면)	상황 논리	양국 엘리트의 정책 지향	양국 엘리트의 행위전략	상대국 정책 산출 ⇒ 양국 관계 (재)형성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	필요 / 양립 가능	보호	가치·태도 일치 (현상 수정 / 급진적)	방어적 형태	안정적인 형태 균형 주기 (전략적 관계)

출처: 저자 작성.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변곡점이 되었다. 물론 그러한 변화의 결과가 러시아가 목표로 하는 다극 체제일 것이라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와 서구의 대립 격화는 글로벌 차원에서 진영 논리를 심화했다. 이러한 현상은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한·러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했고, 한·미·일 연대가 제도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립적 국제질서는 북한에 있어 러시아와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전쟁 지속을 위한 군수물자 조달이 시급했던 러시아와 정치·경제적 돌파구 마련 및 군사·기술 고도화를 도모하던 북한의 이념적·물질적 이해관계를 완벽히 수렴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축전 외교와 다양한 수준의 빈번한 고위급 회담을 러시아 중심으로 심화하며, 양국 엘리트의 우호적인 상호작용 구축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진행된 2023년 9월 정상회담은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위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양국 엘리트의 가치를 '현상 수정'의 방향으로 일치하게 했다. 뒤이어 2024년 6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위한 양국 협력의 방향성을 공식적으로 합의하며, 국제질서 변화 방법에 대한 양국 엘리트의 태도가 '급진적 성격'으로 일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엘리트 간 상호작용을 통해 2023년 9월 정상회담 이후부터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수물자 지원이 본격화되었으며, 2024년 6월 정상회담을 전후해서는 푸틴 정권이 기존에 준수해 온 대북 제재의 규범적 정당성을 공공연히 부정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결국 2024년 6월 북·러 조약이 체결되며 양국 사이에 약 28

년 만에 다시 한번 전략적 관계가 구축되었다. 다만 해당 조약의 이행 조건 및 유효기간 조항에 내재한 안전장치, 그리고 북·러 동맹을 대하는 러시아 엘리트 내부의 유보적 인식과 발언은 양국의 군사 동맹이 과연 실질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의구심을 제기하게 했다. 그러나 2024년 10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침공이 전개되자, 김정은 정권은 조약의 법적 발효 시점에 앞서 북한군 파병이라는 선제적 행위를 통해 조약 내 군사개입 조항을 실천적으로 이행해 버렸다. 이에 따라 북·러 관계는 사실상 혈맹 수준으로 격상되었으며,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공고화를 바탕으로 군사·기술 협력은 물론 사회·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체제를 한층 더 심화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형성과 심화는 학술적·정책적으로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먼저, 학술적으로 북·러 동맹의 형성과 심화 과정은 비판적 실재론과 신고전적 현실주의를 연계한 분석틀의 설명력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실제로 현재의 북·러 관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긴밀한 상호협력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그러한 정세를 활용해 북·러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킨 핵심 변수는 양국 엘리트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글로벌 차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뒷받침하는 동력이 되었고, 동북아시아 차원에서는 안보 블록화를 심화하는 새로운 구조적 환경을 형성했다. 따라서 현재의 북·러 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나타난 새로운 구조적 환경은 정책적으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북·러 밀착과 대북 제재 규범의 약화라는 지역 안보 환경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안보적 실리를 제약하는 반면, 두 권위주의 체제의 연대를 강화하는 우호적 토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론적 설명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조적 환경은 국가 간 관계를 결정짓는 유일한 변수가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안보 블록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실리에 기반하여 단기적으로는 한·러 관계와 남북 관계를 능동적으로 복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북·러 군사 동맹을 이격할 수 있는 외교·안보 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시급한 시점이다. 하지만 단순히 구조적 환경의 변화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행보는 현재의 안보 블록화 현상을 지속·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두 권위주의 체제 간 연대를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한 결과는 1988년부터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한국의 북방전략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이재명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북극항로 개척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의의를 검토하고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엘리트 변수 중심 동태적 양국 관계 모델'은 완결된 정형의 분석틀이 아닌, 비판적 실재론과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핵심 논지를 형태발생론에 접목하여 구성한 선언적 시도로서 보완과 발전의 과정에 있다. 이에 따라 논리적 엄밀성과 주요 개념의 조작화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북·러 관계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틀의 세 번째 단계인 양국 관계의 정교화가 단순한 조약 체결만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규명하였다. 기존 모델이 양국 관계의 정상화 및 정교화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의 체결'을 제시했다면, 본 연구는 상황에 따라 '조약의 이행' 역시 실질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분석틀은 단계별 핵심 개념의 변수 조작화가 더욱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향후 다양한 양자 관계 사례연구에 본 분석틀을 응용 및 검증하여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INSS. 2024.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 한반도 파급 영향”, 『INSS 전략보고』, No. 275.
- 공민석. 2022. “트럼프의 이단성과 바이든의 정상성?: 대중(對中) 전략의 연속성과 단절에 대한 평가”, 『국가안보와 전략』, 제22권 1호.
- 김보미. 2025. “북한의 드론 전력 강화와 러시아 협력의 전략적 의미”, 『INSS 이슈브리프』, 제732호.
- 김성배·김종원·김태주·양갑용·최용환. 2025. “러우 전쟁 3년, 북한군 파병의 쟁점과 전망”, 『INSS 전략보고』, No. 313.
- 김시현. 2024. “우크라이나의 권력 엘리트 갈등과 과두제의 심화”, 『동유럽발칸연구』, 제48권 4호.
- . 2025. “러시아-카자흐스탄 관계의 동학 -‘동태적 양국 관계 모델’을 중심으로.” 『슬라브研究』 제41권 4호.
- 류인석. 2026.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군사개입: 거래를 넘어선 전략국가 구축”, 『국가전략』, 제32권 2호.
- 박아름. 2024. “김정은의 서신을 통해 본 북-러관계”, 『북한학보』, 49집 1호.
- . 2026. “북한의 탈단극 인식: ‘다극’화와 ‘신랭전’”, 『동북아연구』, 41권 1호.
- 서동주·김정기·이상준. 2024. “2024년 북러조약 체결: 전략적 의미와 한국의 대응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24권 4호.
- 신희영. 2019. “정책평가에 대한 비판적 실재론적 접근: 비판적인 다원주의 방법론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9권 제2호.
- 양준희·박건영. 2011. “신고전적 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 비판”, 『국제정치논총』, 제51집 3호.
- 엄구호. 2025.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북러관계”, 『통일정책연구』, 제34권 1호.
- 연담린. 2023. “러시아 유라시아주의와 미국 우선주의의 충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중

- 소연구』, 제47권 제1호.
- _____. 2024. “구조와 행위자 차원에서 한-러관계 동학 연구: 형태발생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64집 1호.
- _____. 2025.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북러관계: 신제국주의 질서론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49권 제2호.
- _____. 2025. “북러 군사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안보 질서에 대한 구조적 함의-”, 『슬라브研究』, 제41권 2호.
- 이기홍. 2021. “비판적 실재론이 상기시키는 사회과학의 가능성”, 『담론201』, 제24권 제1호.
- 이상근. 2026. “북한의 다극세계 건설론: 개념, 의도, 전망”, 『INSS 전략보고』, No. 328.
- 이상우. 2023. “역사적 기억의 외교적 활용: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러 ‘축전외교’”, 『한국과 국제정치』, 제39권 제4호.
- 이상준·서동주. 2024. “러우전쟁 이후 북러 밀착과 전략적 이해”, 『러시아연구』, 제34권 제1호.
- 장세호. 2023. “북한의 신냉전 인식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EAI Global NK 논평』.
- 장세호·김성배·최용환. 2023. “러-우 전쟁 이후 북러 밀착: 현황과 전망”, 『INSS 전략보고』, No. 220.
- 장세호·이기동. 2024.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관계의 진화: 경로, 특성, 전망”, 『INSS 전략보고』, No. 293.
- 전재성. 2023.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전략적 함의와 향후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 정은이. 2026. “중국과 러시아 사이: 변화하는 북한 노동자 시장”, 『KINU Online Series』, CO26-32.
- 정재욱. 2016. “신고전적 현실주의 접근을 통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 고찰”, 『국가안보와 전략』, 제16권 1호.
- 제성훈. 202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변화하는 세계질서”, 『국제지역연구』, 제27권 제1호.
- _____. 2025. “러시아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개념, 인식, 목표와 과제”, 『중소연구』, 제49권 제1호.
- 조선철. 2026. “동태적 국제관계 분석모델을 통한 중국-카자흐스탄 관계 분석”, 『국제정치연구』, 29권 1호.
- 주장환. 2025. “엘리트 변수 중심, 동태적 국제관계 분석 모델: 논리와 사례”, 『분석과 대안』, 제9권 제3호.
- _____. 2025. “탈-탈냉전기, 북중 관계: ‘엘리트 변수 중심, 동태적 국제관계 변화 분석모델’을 통한 통시비교”, 『중소연구』, 제49권 제4호.
- _____. 2025. “탈-탈냉전기, 양안관계 변화에 대한 연구: ‘열린 결론’ 접근”, 『동북아연구』, 40권 1호.
- 차두현. 2024. “북러 밀착관계와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함축성”,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4-19.
- 최은주. 2024. “2023년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이후 북러관계 평가: 비(非)군사부문을 중심으로”, 『세종정책브리프』.
- _____. 2026. “북·중·러 초국경관광의 가능성과 전략적 함의: 집경 교통·교류 재편을 중심으로”, 『세종포커스』, No. 2024-21.
- 홍완석. 2022.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 동학, 함의”, 『슬라브研究』, 제38권 3호.
- _____. 2024. “냉전 시대로의 회귀? 윤석열 정부의 대러정책과 한-러 관계”, 『국제지역연구』, 제28권 제4호.
- 황일도. 2023. “북러 군사협력 논의와 평양의 지향점: 미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도전”, 『통일정책연구』,

북한-러시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형성과 심화: '엘리트 변수 중심 동태적 양국 관계 모델'을 중심으로 (김시현)

제32권 2호.

- 태영호, “김여정 담화의 핵심은 ‘러시아와 한 전호에 서있을 것’”, 『한국방송뉴스』(온라인), <https://www.ikbn.news/news/article.html?no=155591> (검색일: 2026.08.23.).
- “4년 만의 북러 정상회담… ‘북한 위성 개발 도울 것’”, 『연합뉴스』(온라인), <https://www.yna.co.kr/view/MYH20230914000300032> (검색일: 2026.08.23.).
- “국정원 ‘북, 정찰위성 발사 성공…러시아 도움 판단’”, 『연합뉴스』(온라인), <https://www.yna.co.kr/view/MYH20231123008400641> (검색일: 2026.08.23.).
- “김용현 국방 ‘러시아 간 북한군, 파병 아닌 용병이라 해야’”, 『조선일보』(온라인),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814> (검색일: 2026.08.23.).
- “김정은, 푸틴에 ‘러, 서방과 성전…제국주의 맞서 함께 싸울 것’”, 『연합뉴스』(온라인),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3121851080> (검색일: 2026.08.23.).
- “대공세 신포탄 쏜 우크라이나… “이게 尹 말한 상황” 탄약 지원 압박”, 『중앙일보』(온라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9027> (검색일: 2026.08.23.).
- “러 외무 ‘北 비핵화, 종결된 문제…IAEA 북핵 결의안 거부’”, 『연합뉴스』(온라인),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7003100109> (검색일: 2026.08.23.).
- “美 ‘러, 1년간 北에서 컨테이너 1만6천500개 분량 탄약 등 조달’”, 『연합뉴스』(온라인), <https://www.yna.co.kr/view/AKR20240905005651071> (검색일: 2026.08.23.).
- “북러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 연결식… ‘6월 19일 완공’” 『동아일보』(온라인),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421/133785767/1> (검색일: 2026.08.23.).
- “신원식 ‘러, 北과병 대가로 평양 방공망 장비-대공 미사일 지원’”, 『동아일보』(온라인),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123/130485885/2> (검색일: 2026.08.23.).
- “우크라이나, 정예 병력과 대규모 장비 투입해 쿠르스크 점령”, 『동아일보』(온라인),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825/126671824/1> (검색일: 2026.08.23.).
- “원산서 북러 친선병원 착공식… ‘방대한 협조사업 추진’”, 『뉴스시스』(온라인),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23_0003602655 (검색일: 2026.08.23.).
- “합참의장 ‘北 ICBM 화성-20형, 러 기술지원 가능성 충분’”, 『연합뉴스』(온라인),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4088751504> (검색일: 2026.08.23.).
- Archer, Margaret. 1995. *Realist Social Theory: The Morphogenetic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maceda, Margarita. 2015. *Politics of Energy Dependency: Ukraine, Belarus, and Lithuania between Domestic Oligarchs and Russian Pressur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Bhaskar, Roy. 2008. *A Realist Theory of Science*. London: Routledge.
- Choi, Woosoon. 2004. “The North Korea-Russia Alliance and Korea’s Policy”, *IFANS PERSPECTIVES*, IP2024-14E.
- Gilpin, Robert. 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8. “The Theory of Hegemonic War”, *Th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 18, № 4.
- Lukin, Artyom. 2024. “The Korean Peninsula’s New Geopolitics: Why North Korea Is Shifting toward an Alliance with Russia”, *Asia Policy*, Vol. 19, № 3.

- Meissner, Katharina and Graziani, Chiara. 2023. "The transformation and design of EU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Russia",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Vol. 43, № 3.
- Rathbun, Brian. 2008. "A Rose by Any Other Name: Neoclassical Realism as the Logical and Necessary Extension of Structural Realism", *Security Studies*, Vol. 17, № 2.
- Rose, Gideon. 1998. "Neoclassical Realism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World Politics*, Vol. 51, № 1.
- Schweller, Randall. 2003. "The Progressiveness of Neoclassical Realism." In *Progres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ppraising the Field*, edited by Colin Elman and Miriam Fendius Elman. Cambridge: MIT Press. 311–348.
- Waltz, Kenneth. 1959. *Man, the State, an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McGraw-Hill.
- Timofeev, Ivan. 2024. "Russia–North Korea: The Useless Threat of Sanctions", 『Valdai Discussion Club』(온라인), <https://valdaiclub.com/a/highlights/russia-north-korea-the-useless-threat-of-sanctions/> (검색일: 2026.08.23.).
- "Miscalculations, divisions marked offensive planning by U.S., Ukraine", 『The Washington Post』(온라인),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3/12/04/ukraine-counteroffensive-us-planning-russia-war/> (검색일: 2026.08.23.).
- Асмолов, Константин и Захарова, Людмила. 2020.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с КНДР в XXI веке: итоги двадцатилетия", *Вестник РУДН. Сер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Т. 20, № 3.
- Гамерман, Евгений. 2026.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и их влияние на региональную и глобальную безопасность", *Via in tempore. История. Политология*. 2026. Т. 53, № 1.
- Дьячков, Илья. 2022. "Россия и стран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Азиатский поворот в российско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достижения, проблемы, перспективы: монография*. Анатолий Торкунов, Дмитрий Стрельцов, Екатерина Колдунова (ред.), Москва: Аспект Пресс.
- Караганов, Сергей., Крамаренко, Александр., Тренин, Дмитрий. 2023.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в отношении и Мирового большинства." Доклад Центра комплексных европей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ИУ ВШЭ.
- Никонов, Вячеслав. 2005. "Россия и Мир: от Горбачева до Путина." В *Политика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Курс лекций*. Вячеслав Никонов (ред.),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Москве, 4–23.
- Цыденова, Елена. 2026.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сближение в контексте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КНДР", *Восточный вектор история обще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о*, Т. 92, № 1.
- "В МИД РФ назвали договор России и КНДР предупреждением для третьих стран", 『Известия』(온라인), <https://iz.ru/1717798/2024-06-25/v-mid-rf-nazvali-dogovor-rossii-i-kndr-preduprezhdeniem-dlia-tretikh-stran> (검색일: 2026.08.23.).
-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Я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МИД России』(온라인), https://www.mid.ru/ru/foreign_policy/international_contracts/international_

북한-러시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형성과 심화: '엘리트 변수 중심 동태적 양국 관계 모델'을 중심으로 (김시현)

contracts/2_contract/62546/ (검색일: 2026.08.23.).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ИД России』(온라인), <https://www.mid.ru/ru/detail-material-page/1860586/> (검색일: 2026.08.23.).

“Ответ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В.Лаврова на вопрос Первого канала, Пхеньян, 19 июня 2024 года”, 『МИД России』(온라인), https://mid.ru/ru/press_service/minister_speeches/1958176/ (검색일: 2026.08.23.).

“Песков: поставки оружия Киеву буду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вовлеченность Сеула в конфликт”, 『ТАСС』(온라인), <https://tass.ru/politika/17558791> (검색일: 2026.08.23.).

“По случаю годовщины Соглашения”, 『МИД России』(온라인), https://dprk.mid.ru/ru/press-relize/novosti_posolstva/po_sluchayu_godovshchiny_soglasheniya_20230317/ (검색일: 2026.08.23.).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온라인),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70565> (검색일: 2026.08.23.).

“Путин: РФ соблюдает санкции ООН против КНДР, но перспектив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ВТС есть”, 『ТАСС』(온라인), <https://tass.ru/politika/18741163> (검색일: 2026.08.23.).

“Россия с КНДР засели в одном окопе: Как Сергей Шойгу в Пхеньян съездил”, 『Коммерсантъ』(온라인), <https://www.kommersant.ru/doc/6125180> (검색일: 2026.08.23.).

“Стать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газете «Нодон синмун» «Россия и КНДР: традиции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квозь год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온라인),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74317> (검색일: 2026.08.23.).

【 Abstract 】

The Formation and Deepening of the DPRK-Russi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Focusing on the “Dynamic Bilateral Relations Model Centered on Elite Variables”

Kim, Siheon

Focus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structure and agency, this study aims to chronologically trace and microscopically analyze the formation and deepening of the strategic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bilateral relations in the 2020s through the “Dynamic Bilateral Relations Model Centered on Elite Variables,” which synthesizes critical realism and neoclassical realism. The findings indicate that amidst structural shifts—namely, the intensifying confrontation within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 alignment of bilateral interests—the Kim Jong-un’s regime acting as an active agent, led close interactions with Putin’s regime, restoring and deepening their past alliance based on the alignment of elite policy orientations. The North Korea-Russia strategic relationship consolidated through this process has generated multilayered structural repercussions. At the global level, it provides ongoing momentum for the Russia-Ukraine War, thereby driving the multipolarizat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Concurrently, at the regional level, it has created a new structural environment that deepens security blocization by forming a robust solidarity in Northeast Asia that cannot be severed in the short- to medium- term. Academically, this analysis holds significance in expanding theoretical boundaries and verifying the explanatory power of connecting critical realism with neoclassical realism. From a policy perspective, it highlights that South Korea’s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must be formulated within a new external framework that is qualitatively distinct from the past.

Key Words : Russia-North Korea relations, Russia-North Korea alliance, Russia-North Korea treaty, Russia, North Korea

• 논문투고일 : 2026년 6월 24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6년 8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8월 18일